

#0 수능 영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항상 제대로 된 칼럼을 쓴다면,

첫 소개는 수능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세부적인 특징을 알려드리며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수능 영어 지문의 특징을 아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관점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영어는 45문제로, 듣기 17 문항 (평균 배점 37점~39점) 독해 28 문항 (평균 배점 61점~63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듣기 문항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편이며,

독해 문항의 특정 유형이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지금부터 유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기준)

1. 말의 목적
2. 말의 목적
3. 말의 목적
4. 대화 VS 그림
5. 대화 이후 할 일
6. 금액 계산
7. ~에 갈 수 없는 이유
8. 언급되지 않은 것
9. 일치하지 않는 것
10. 대화 VS 표
11. 짧은 대화 이후 예상 응답 (1)
12. 짧은 대화 이후 예상 응답 (2)
13. 긴 대화 이후 예상 응답 (1)
14. 긴 대화 이후 예상 응답 (2)
15. 상황 제시문 대응안
16. (두 번 재생) 주제
17. (두 번 재생) 언급되지 않은 것 (듣기 영역 마지막 문항)
18. 편지글
19. 심경 변화
20. 주장하는 바
21. 함축 의미 추론
22. 글의 요지
23. 글의 주제
24. 글의 제목

25. 도표
26. 인물 제시문 중 일치 X
27. 포스터 1 (일치 X)
28. 포스터 2 (일치 O)
29. 어법
30. 문맥상 낱말
31. 빈칸 추론 (1)
32. 빈칸 추론 (2)
33. 빈칸 추론 (3)
34. 빈칸 추론 (4)
35. 흐름상 어색한 문장
36. 순서 추론 (1)
37. 순서 추론 (2)
38. 문장 삽입 (1)
39. 문장 삽입 (2)
40. 박스 요약
41. 장문 독해 (1) : 제목
42. 장문 독해 (1) : 문맥상 낱말
43. 장문 독해 (2) : 순서
44. 장문 독해 (2) : 다른 대상 찾기
45. 장문 독해 (2) : 적절하지 않은 내용 (독해 영역 마지막 문항)

각 유형이나 순서와 배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8 수능 개편 이후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 드린 문항들 중 학생들이 생각보다 실수를 자주하고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유형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대화 이후 예상 응답 (1), (2)

함축 의미 추론

문맥상 낱말

빈칸 추론

순서 추론

문장 삽입

장문 독해 (1) : 문맥상 낱말

해당 문항들의 배점 합은 2025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34점입니다. (매년 배점이 문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25 기준으로 보시겠습니다.)

해당 유형들에서 고득점을 위해서라면 한 두 문제 정도면 몰라도 세 문제 이상 틀리면 안됩니다.

해당 유형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대화 이후 예상 응답 (1), (2)

이 유형에서 듣기 제시문은 두 문장이 나오고 끝납니다. (보통: 남자 한 마디 -> 여자 한 마디 -> 끝)

고로 잘 집중하고 있지 않거나 방심한 학생들은 듣지도 못했는데 듣기 제시문이 끝나버리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듣기 유형에서 유일하게 뒤의 독해 문제 풀지 말고 가만히 집중해서 보고 있기를 추천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함축 의미 추론

해당 유형에서는 완전한 지문이 나오고, 지문의 특정 비유적 표현에 밑줄을 그어둡니다.

그냥 보고서는 그 비유적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없기에, 지문의 주제와 그것을 지탱하는 부수적인 아이디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줄 표현이 있는 부분의 맥락과 그 주제를 잘 연결시켜 선택지 중 정답을 고르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요즘 기조를 보면 5개의 선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의 난이도가 확연히 올라갔습니다.

각 선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선지만 두고 보았을 때’ 분석하는 연습도 좋습니다.

문맥상 낱말

해당 유형에서는 완전한 지문이 나오고, 지문 속 다섯 가지의 단어가 선택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다섯 단어가 각각 속해 있는 맥락에서는 어떤 표현이 와야 적절할지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글을 많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해당 유형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빈칸 추론

수능 영어에서 가장 유명한 유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유형입니다.

지문 속 한 부분이 빈칸으로 비워져 있는데,

이를 올바른 표현이나 맥락상 올바른 설명으로 채워야 합니다.

지문의 핵심 아이디어와 지탱하는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유형 대비 빈칸 추론 유형에 힘을 주려는 평가원의 경향성이 있기에 그러합니다.

2점짜리 문항 둘, 3점짜리 문항 둘로 총 1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순서 추론

문장 삽입과 함께 요즘 어려워진 유형 중 하나로, 주어진 보기 문장 이후 (A) / (B) / (C) 중 어떤 부분이 올지 추론하고 그에 맞춰 뒷부분을 완성시키는 것이 목표인 유형입니다.

2점짜리 문항 하나, 3점짜리 문항 하나로 총 5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다면 지시어나 접속사만으로 어렵지 않게 맥락을 구성할 수 있으나, 어렵게 나온다면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오직 맥락만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합니다. 평소에 학습할 때 보기 문장을 읽고 알 수 있는 정보들과 뒤에 올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를 혼자 만들어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문장 삽입

순서 추론과 함께 요즘 어려워진 유형 중 하나로, 지문 속 비워져있는 다섯가지의 부분 중 보기 문장이 들어갈만한 곳을 찾는 것이 그 목표인 유형입니다.

2점짜리 문항 하나, 3점짜리 문항 하나로 순서 추론의 문항 총 배점과 같은 총 배점을 가집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다면 보기 문장 속의 지시어나 접속사를 특정 맥락과 어렵지 않게 연결지을 수 있으나,

어렵게 나온다면 오직 맥락만으로 작은 단서들을 찾아 채워넣을 것을 요구합니다.

평소에 학습할 때 보기 문장을 읽고 앞 뒤 이야기가 각각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대조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장문 독해 (1) : 문맥상 낱말

두 문단짜리 긴 지문 속에 있는 다섯가지의 선택지 단어들 중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지를 찾는 것이 목표인 유형입니다.

평소에 시간 관리를 잘 해 어느 정도 다 풀고도 시간이 조금 남는 학생이라면 무리 없이 천천히 찾아낼 수 있겠지만,

해당 유형을 틀리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시험 중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 하였기에 해당 문항을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간 관리 능력과 맥락을 찾는 능력을 기를 것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특정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독해 영역에 있는 문항 유형의 두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카테고리는 '지문이 완전한 유형'입니다.

지문이 완전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필자의 핵심 아이디어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다른 정보들을 응집시켜

결국에 필자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선지 중 매력적인 오답을 제거하고 '가장 적절한' 선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지문이 불완전한 유형'입니다.

지문이 불완전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완전하게, 즉, 매끄럽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매끄럽게'라는 말이 모호하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시어나 접속사의 사용에 대한 이해와 맥락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서 추론이나 문장 삽입과 같은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혼자서 연습할 때 꾸준히 '상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상이 실제 정답과 대조했을 때 매치될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연습은 상상을 정답으로 이끄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끌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란 주어진 근거를 기반으로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그 너머가 과도한 상상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진짜 그럴싸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 영어 지문은 근본적으로 academic writings, 학술적인 글입니다.

학술적인 글은 main idea와 이를 지탱하는 supporting idea로 나뉘는데,

이것들을 캐치하는 것이 수능 영어 지문을 이해하는 것의 지름길이자 유일한 정답입니다.

저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맥락과 맥락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 독자의 시점이 아닌 좀 더 멀리 떨어진 제3자의 입장에서 글을 보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주어진 정보만 보고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한 뒤 그것들을 이어붙여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글을 이해하는 것이

지문이 완전한 유형을 푸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순수독해력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즘 기조에서는 단순히 문제를 풀려고 글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 글을 읽고 잘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지를 가려내는, 이러한 습관이 능력을 가장 잘 길러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0.5 수능 영어 유형 정리 + 티어표

수능 영어에는 오직 유형이 세 개,

1. 지문이 완전하게 제시되는 유형
2. 지문이 불완전하게 제시되는 유형
3. 그 외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 지문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유형
2. 지문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유형
3. 쉬운 거

유형 1

20, 21, 22, 23, 24,
30, 31, 32, 33, 34,
40, 41, 42

유형 2

36, 37, 38, 39

유형 3

18, 19,
25, 26, 27, 28,
29, 35,
43, 44, 45

일반적인 난이도 분류 (진입 장벽 높은 순)

1티어: 33, 34 (빈칸 3점짜리들), 37, 39 (순삽 3점짜리들)

2티어: 21, 31, 32, 36, 38 (함축의미추론, 빈칸 2점짜리들, 순삽 2점짜리들)

3티어: 23, 24, 29, 30, 41, 42 (주제, 제목, 어법, 문맥상 낱말, 장문독해 1)

4티어: 20, 22, 40 (주장, 요지, 문단 요약)

5티어: 18, 19, 25, 26, 27, 28, 35, 43, 44, 45 (편지글, 심경 변화, 도표, 인물, 안내문 1, 안내문 2, 문맥상 문장, 장문독해 2)

독해만 풀 때 주어지는 제한 시간: 46분 가정

1티어: 3분 분배 (총 12분)

2티어: 2분 30초 분배 (총 12분 30초)

3티어: 2분 분배 (총 12분)

4티어: 1분 30초 분배 (총 4분 30초)

5티어: 30초 분배 (총 총5분)

*어법, 도표 등 쉬운 문항들 실질 소요 시간 감안하면 40분대 초반에 끝남. 그 시간에 1티어, 2티어 문항들 점검.

유형 1 속 1티어~2티어 비율 VS 유형 2 속 1티어~2티어 비율

-> 유형 2의 압승

전반적 난이도: 유형 2 > 유형 1 > 유형 3

정리)

요즘 기조에서 순삽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유형 1의 약 40퍼센트의 문제들 또한 1티어 ~ 2티어에 속하므로 유형 1, 특히 함축의미추론과 빈칸 추론의 문항들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시간 분배 계획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1 영어 독해 트렌드

1. 글을 읽는다는 것은

지문에 나오는 핵심 틀을 구성하는 내용들에 대한 선별 작업과
그 정보들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유기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구성된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여
지문의 전개 양상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2. 지문 속 대상과 그 대상이 띠는 성격과 특징은

다른 부분과 연관성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대상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알고
해당 대상이 그 지문 속 소재와 맥락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에 대한 사고를 바탕으로 글을 읽어나가야 한다.

3. 소재를 알고 어떤 정보가(조건 상황 가정/성격 등등) 그 맥락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지문의 첫 시작을 하는 데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알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것: 'A->B' 틀)

문장에 있는 부속 정보 다 빼고

어떤 대상(A)이 어떤 성격(B)을 가졌다고 진술하는

필자의 포인트(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어하는 말)를 찾는 것이 핵심.

4. 구체화 과정이란 소재를 보여줌으로써 시작한 글이

대상과 각 대상의 특성이나 특징을 나타내며

어떠한 조건에 대한 반응을 요구함에 따라

하나의 초점으로 맞추어지는 것을 말한다.

5. 글의 전개를 매끄럽게 하도록 필자가 넣어둔 장치를

나는 '맥락적 장치'라고 부른다.

맥락적 장치에는

현상-풀이/원인-결과,특징 나열/대상 간의 비교의 구조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맥락적 장치에서는 대상의 특성 혹은 기능을 알아낼 수 있다.

6. 명시된 근거들로부터 특징들을 고려하고

공통적인 키워드를 추출하여

성격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이것이 곧 지문을 주체적으로 읽게 해주는 것이다.

7. 결론적으로, 글을 읽을 때에는

소재를 파악하고 대상이나 어떠한 조건과

그 이후의 상황 등의 맥락적 장치를 보며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특징들을 머릿속으로 흡수시켜 특성을 생각해

결론 부분에서 하나의 맥락으로 모이게 되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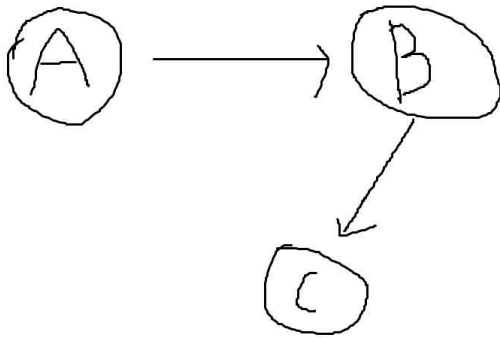
그 흐름과 포인트는 '나무'가 아닌 '숲'에 있는 셈이다.

#1.5 생각보다 지문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미 이것처럼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말해보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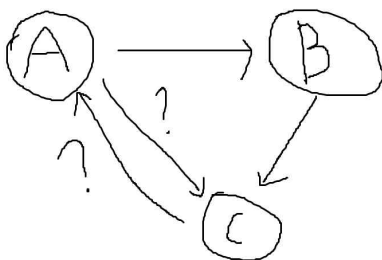


A라는 대상이 B라는 성격을 부여 받은 상황에서

C라는 후속 상황이 B 뒤에 나오는 거면

(B에 대한 추가 설명/상황의 전개 등 뭐든)

무조건 A 랑 C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서 A의 (보다 일반적인) 성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함 해보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독해에 진짜 도움 많이 된답니다

#2 학원 애들한테만 알려준 것들

수능 영어 제대로 빠르게 볼려면

몇 가지 지름길 루트 타야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 1) 흑백논리
- 2) 예시 건너뛰기
- 3) not only A but also B / B as well as A 정리

가 있다고 말해주는데

우선

흑백논리를 써서 읽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시)

He seldom finished his homework.

-> He never finished his homework.

~할 가능성이 높다 / 거의 ~ 안했다 같은 것들은

각각 무조건 항상 ~ 한다 / 절대 네버 ~ 안한다 로 보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 둔 상태에서 예시가 나온다면 다 걸러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들어

잠을 자는 동물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행동 습관은 동물의 신체 피로도를 누적시킨다. 예를 들어 개는 ~. 너구리는 ~. 등등 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부분 부터는 다 걸러도 됩니다

애초에 개념 추가 설명해주려고 예시 주는 건데 개념 이해하면 뭐할려고 작은 부분까지 다 보려고 합니까. 포인트는 이미 캐치했는데

다만 ‘인류는 선하다’와 같이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예시는 이를 구체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에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읽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예시를 걸러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not only A but also B / B as well as A 정리인데,

여기선 그냥 강조 되는 부분만 봐라 이거예요

Not only a but also b 에서 포인트는 b라서 a 다 건너뛰시고요 B as well as A도 포인트가 B라서 A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필자가 내비치는 주장이 조금씩 쉽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해보시길

#3 1등급으로 올라가봅시다. (독해)

*모든 이야기는 문장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음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고3때는 아래 내용의 이야기들을 무의식적으로 했지만, 계속해서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따라가보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봐주세요.

수능 영어 지문은 딱딱한, academic한 어조로 formal하게 작성된 비교적 짧은 문단입니다.

그렇기에 평소에는 그러한 형식의 글을 자주 보지 못하는 수험생분들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능 영어에서 고득점을 가져가고 싶으시면 academic한 글의 구조, 논리적 전개의 흐름, 그리고 글을 '와닿게' 만드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능력들을 위해 말 그대로 단어로, 문장으로, 문맥으로, 그리고 필자의 아이디어로 구성된 짧은 academic writings의 글의 구조, 글의 전형적인 문맥 흐름, 객관적 정보 '다루기(or 다루기)' 연습을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 내 '포인트 가려내기'에 대한 어느정도 직관적 인식이 필요하고, '소재 가려내기' 또한 '포인트 가려내기'와 마찬가지로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에서 중요하단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소재) 필자의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지 (포인트 가려내기)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대상/특성/특징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문장들을 연결시켜 문맥의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장들에서 나타나는 대상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특성을 인지한 다음, 그것들을 문맥의 일부분(혹은 전체)으로 치환시켜서 특정 문장들이 어떤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를 적용시키면서 문제들을 손안에서 다루어보고, 체화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능 영어 지문에서는 적잖이 필자의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이를 유념하면서 풀 수 있기 위해서 바로 '흑백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he seldom plays game -> he never plays game 의 느낌인 것이죠. 이와 같이 수능 영어 지문에서는 그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를 또 하나 들어보자면 It is better to play game than to study -> 뭐 어쨌든 게임이 더 낫다 내지 게임이 답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재차 말하지만, 그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영어에서는 여러 종류의 판단이 있습니다.

가치 판단 -> 좋다/안좋다 등의 '가치'에 초점 (필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

시비 판단 -> 옳다/그르다에 초점 (어느 정도 필자의 주관이 개입되기도 함)

논리적 판단 -> 분석에 초점 (인과 등) (필자의 주관보다는 논리적 현상에 초점을 두기도 함)

이런 판단이 지문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He must (has to / should / ought to 등) ~~~ -> '~해야만 한다'의 뉘앙스이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경우에 따라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령, '현재 자동차에 타이어가 하나 빠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타이어 A와 B가 있는데, A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B는 그렇지 않다.' 라는 맥락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어떤 바퀴가 들어가야 될까요? B죠? 가치 판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지 않았어도 말을 내뱉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독자의 필자화로 말미암은 판단'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웃기겠지만요)

우리가 읽으면서 주어진 정보에 따라 최대한 글의 텐션을 따라가면서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곧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일테니까요.

가치 판단이 가능할 경우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가 좋다 / 뭐가 안 좋다] 이걸로 중간에 점검하면서 읽으시고요, 시비 판단의 경우에는 필자의 주장에 따라가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 or 이것이 맞다 / 틀렸다] 이렇게 읽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논리적 판단의 경우에는 인과적 상황이나 조건 상황과 후속 상황 사이의 관계성에 주목하시면서 읽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따로 노는 것들이 아닙니다.

소개 파악하고

포인트 가려내면서 문장을 읽어나가는 동시에

특정 판단을 내리고 필자의 뉘앙스를 이해해서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고 이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기출은 어떻게 봐야 할까

글의 구조와 논리 전개 흐름에 대한 인지가 가능할 정도로 언어적 민감도와
순수 독해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지문 내용에 살짝의 변수를 더해
가능한 경우를 혼자 합리적으로 그려보기도 하며 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기
출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막 다뤄보십시오

오답 선지가 왜 정답이 안되는 건지
아주 사소한 사이즈의 '근거' 찾는 데에 집중하지 말고 전반적인 맥락에서 봐보십시오.

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무엇이 소재가 되는지 (소재란 지문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다뤄지는 대상/현상/개념 입니다)

글의 중반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글의 후반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끝내는지

즉, 글의 논리 전개 흐름을 보고 올바른 (필자가 제시하는 사고의 틀 내에서의) 해석을 지향하며
이에 따른 선지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은 이렇게 보세요.

#5 수능 영어 지문의 그래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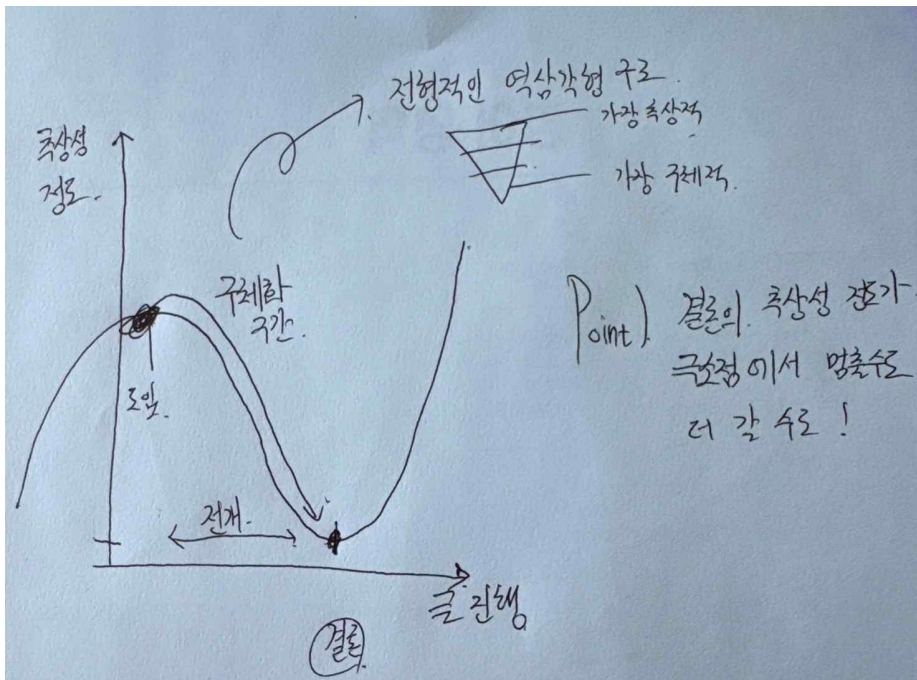
평소에 영어 지문의 추상성 정도는 역삼각형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다수였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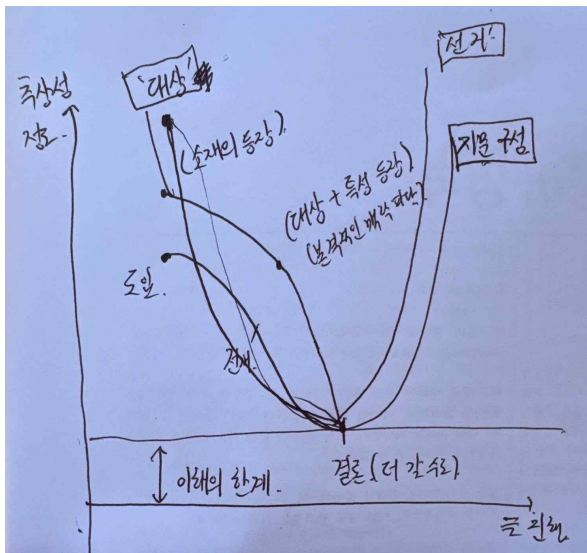
하지만 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일반화하는 예시도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글 구성의 추상성 정도를 가장 시각적으로 잘 와닿게 표현한게 아래의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개념인 '대상'의 추상성 정도를 위에 덧대보면 아래 사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중간에 있는 그래프가 '대상' 그래프이고, 왼쪽 맨 윗줄부터 시작하는 그래프가 '선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소재의 등장부터 시작하는 대상은 처음에 추상적으로 시작하지만, 대상과 개념, 현상과 이에 대한 풀이, 예시등으로 점점 더 해당 대상들이 글에서 어떤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지 알기 쉽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는 마치 이차함수의 형태를 보이는데요, 이론적으로라면 가면 갈 수록 선지가 명확해져야 하지만, 선지로 변별을 하려고 하는 현재의 기조에서는 오히려 체감상 더욱 추상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더 추상적으로 보이게 될 수도 있다고 적어두었습니다.

할 거 없어서 생각해보면서 장난으로 만들어봤습니다

#6 100점이 아니라면 스킬은 그저 요령일 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능 영어 문제 풀이
라고 하면

여러 스킬이 생각납니다.

지문 첫 문장 끝 문장만 보고 주제 생각해라
라고 하신 분도 적잖이 본 적 있었고

작은 파편 몇 개 가지고 문제를 푸는 데
'억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것 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영어 공부는
수능 때 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당연합니다.

근데 어째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워드 마스터도 아니고) 요령 마스터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 요령은
오직 지문을 '본인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스킬'이 됩니다.

문제 풀고 오답하실 때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연구하듯'
'그래서 네(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뚫어나가십쇼'

그러다보면

모르는 단어나오면
노트에 적을 수 있고

해석 안되는 문장에서 막히면
구문 연습할 수 있고

문장 여러개 보면서
'아 이 얘기하네'
라는 생각으로 맥락 정리할 수 있고

결국
'아 이 말 하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하며 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단어와 구문독해, 맥락 정리, 궁극적인 메시지(주제) 도출 (추론) 입니다.

스킬에 매몰되지 마세요

지문에 있는 단어, 표현, 한 두 문장 가지고
지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답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7 (폭로) 입대 D-1, 수능 영어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밝히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대산 영어 연구소입니다.

한대산 영어 연구소의 팀장인 저, 한대산 영어는,

2025년 4월 8일 14:00 부로

37사단 신병교육대에 배치된 군인 신분의 사회 구성원이 됩니다.

이에 3년차 수능 영어 전문 칼럼니스트 + 학습컨텐츠 크리에이터인

저로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InDePTh 영어 독해 개념서 말고,,)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는 어떤가요?

어떤 분은 단어를 몰라 막막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문장 해석이 어려워 글이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봐왔던 수많은 학생들은

대부분

1. 단어를 모른다
2. 문장 해석을 못한다.
3. 글은 이해가 되는데 선지 선택이 어렵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이 게시글을 마지막으로,

저는 잠시 수능 영어 칼럼니스트라는 제 직업을 내려둘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확실히 해결해드리고 떠나겠습니다.

각 케이스 별로 보겠습니다.

1. 단어를 모른다.

수능 영어 문항은 오직 세 유형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 1) 지문이 완전하게 제시되는 유형 (함축의미추론, 주제, 제목, 빈칸, 문단요약 등)
- 2) 지문이 불완전하게 제시되는 유형 (순서, 삽입)
- 3) 그 외 (18번, 19번, 도표 등)

세 유형이 묻는 독해 능력이 다 다를지언정,
셋 다 공통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입니다.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됩니다.
해석이 안되면 지문이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두 문장 내지 세 문장이 만들어내는 '맥락' 혹은 '흐름'이 안 와닿습니다.

결국 글을 끝까지 '봐도'
'이해는 안되는 것'이죠.

단어를 모르는 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처방전을 내려드립니다.

- 1) 매일 단어 최소 30개, 최대 120개를 외우세요.
A4지 좌 우 측에 각각 40개의 영단어가 영어-한글 구성으로 나열되어
한 페이지에 80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좌측부터 클리어하고 우측을 클리어한 다음, 둘 다 마지막 점검하는 과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좌측과 우측을 클리어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1. 영어-한글 구성으로 된 40 단어들을 빠르게 훑는다.
2. '이미 알고 있는 단어'와 '헛갈리는 단어 + 본 적도 없는 단어',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3.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만 빨리 훑어 확실히 이미 알고 있는 것인지 2차 점검한다.
4. '헛갈리는 단어 + 본 적도 없는 단어'들의 영단어와 뜻을 빠르게 보며 '그래도 모르는 것들'을 찾아낸다.
5. '그래도 모르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읽으며 두 세번을 훑는다.
6. '진짜 모르겠는 것들'만을 남겨두어 노트에 적어둔다.

다음은 한 페이지 최종 점검 과정입니다. (우측 페이지 클리어 한 시점에서 해야할 것들)

1. 노트를 꺼내들어 '진짜 모르겠는 것들'을 외운다.

2. 좌측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 (빠르게 훑으며 뭔가 '걸리는 것들'을 찾아내자)
3. 우측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 (빠르게 훑으며 뭔가 '걸리는 것들'을 찾아내자)
4. 노트에 있는 것들을 무시한 채로 '진짜 모르겠는 것들'을 다시 찾아낸다.
5. '진짜 모르겠는 것들'만을 집중적으로 읽으며 두 세번을 훑는다.
6. 한글 뜻을 가리고 '진짜 모르겠는 것들'만 셀프 테스트한다.
7. '그럼에도 틀린 것들'을 노트에 적어둔다 (중복 상관 X)

이렇게 영단어 외우고

체화하니 140 단어 15분 걸립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이미 시간의 절반을 절약한 셈입니다.

끝없는 '분류' 과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암기하세요.

저는 이를, '필터링' 암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시도해보세요.

2. 문장 해석을 못한다.

이 케이스의 경우, 단어는 '거의 다 알고 있는' 수준이라는 가정 하에 해결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문장을 해석하는 것의 본질에 대해 먼저 알아야합니다.

지문은 작게 보면 단어,

조금 더 넓게 보면 문장과,

문장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맥락과

이로부터 추론하여 알 수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 혹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장 해석을 왜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글 전반의 맥락 측면에서

이 문장이 나올 시점에 '필자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려고 합니다.

위 문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내포되어있습니다.

- 1) 결국 우리는 글 전반의 맥락에서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 2) '1)'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장을 해석하여 누적해나가야 합니다.

결국 글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아내려고 지금 이 문장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문장의 세세한 정보 하나하나 다 가져가면서 6~8 문장으로 구성된 수능 영어 지문을 다 읽어내는 게 말이 될까요?

저는 그닥 좋은 머리가 아니라서 중간 중간 까먹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였는데 고2 올라오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문장 속에 있는 모든 정보의 배치와 역학 (서로 제약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관계), 그 다음 문장과 연결점, 맥락의 전환점... 썩 다 기억하면서 읽어나가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IQ 200은 가능하겠지만서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합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독해의 일명 '강약조절'이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강약조절'이란, 제가 아는데로 써보자면,

독해의 힘 주기를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두어

중요한 정보만 세게 읽고 그렇지 않고 부수적인, 부차적인 것들은 약하게 읽어 '거의 넘어가듯' 읽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독자가 되기 위해선

아주 바람직한 읽기 태도이며

필연적으로 세상에 등장할 수밖에 없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최고 효율의 강약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강약조절을 잘할 때 비로소 지문을 읽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

시험을 운영하는 데 시간이 덜 들며

어렵고 헷갈렸던 문항들을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자 다들 궁금하셨죠?

'그래요. 강약조절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쉽습니다.

그닥 안 중요한 거 다 빼면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ㅎ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이제 수능 영어 지문을 내는 '필자'입니다. (원래는 논문 발췌라 그 논문 쓰신 분들이 이런 것까지 고려하여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상해봅시다)

이제 문장을 써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두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중요한 정보만 쓰기
2. 부수적인 정보도 넣어 '중요한 정보'가 더욱 돋보이게 하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실제 수능 영어 지문은 '2'를 선택합니다.

필연적으로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으로 나뉘 수밖에 없지요.

자, 제가 다음 세 문장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Scattered attention harms your ability to let go of stress, because even though your attention is scattered, it is narrowly focused, for you are able to fixate only on the stressful parts of your experience."
2.
"This is not thought control. It is the very reverse: mental liberation."
- 3.

"If there is a clear line between burned out and not, as there is with a lightbulb, then we have no good way to categorize people who say they are burned out but still manage to do their work competently."

1의 경우, '포인트 정보 잡기'

2의 경우, '반대 정보 빼기'

3의 경우, '현상-풀이 중 풀이에 집중하기'

를 통하여 강약조절을 해야합니다.

당연히 강약조절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두고 가시죠.

1의 경우,

Scattered attention -> harms your ability to let go of stress가 포인트가 됩니다.

왜? because, for ~~~ 이 부분들 다 '왜 그런지'에 대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횡단보도에서 차를 못 봤거든요.

뭐가 더 중요해요?

교통사고 난 거 VS 차 못 본 거

아니 당연히 교통사고 난 거가 더 중요합니다.

차 못 봤는데 괜찮았지롱 ㅋㅋ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한 시점부터 그 이유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났다는 이야기의 초점을 두면 어느 정도 맥락이 고정됩니다.

고정 되지 않으면 '차 못 봤는데 괜찮았지롱 ㅋㅋ'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그것을 못 봐서 지문을 읽으며 스스로 편향된 지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scattered attention -> 스트레스 날려보내기 능력 저해
라고 하네요?

근데 아직 뭔가 말이 좀 딱딱해서 안 와닿는다고요?

걱정마세요 어차피 수능 영어 지문 말투도 엄청 딱딱해서 못 알아듣는 분들이 대다수이지거든요

배 고프다고 하면 될 거를

4일 간 밥 없이 물만 먹어 현재 아사의 직전까지 와있기에 그대에게 식사를 대접할 것을 조심스레 요청하고자 하는 본인의 위치와 상황,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든 이 세상을 탓하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게 수능 영어라니까요?

그니까 저희는 4일 간 뭐시기 저거를 '배고프다라고 하네' 로 바꿔내야 해요.

자 죄송합니다. 자꾸 이야기가 좀 셉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하니 자꾸 끌어올 얘기가 많아지네요

자자자자자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scattered attention -> 스트레스 날려보내기 능력 저해

라는 걸 한 번 '우리가 와닿게끔' 'easy하게' 만들어봅시다.

흩어진 어텐션 -> 아잉 스트레스 자꾸 안 날라감

or

흩어진 어텐션 -> 스트레스 쌓이누,,,

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문장의 요지예요.

정리하자면, because, for 처럼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들은 다 빼고 결과부터 보고 읽자
였습니다.

다음

2의 경우입니다.

2.

'This is not thought control. It is the very reverse: mental liberation.'

여기서 포인트는 This -> mental liberation 입니다.

저 자꾸 화살표 쓰죠?

해석 많이 해보세요. 화살표 이거 진짜 유용합니다 생각보다 은근 레전드 굳입니다.

음

'아니 선생님, is not thought control. It is the very reverse:' 이 부분 왜 안 읽으세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손!

(손 드신 분 100만명 정도 보이네요)

자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 **아니다**. 그것의 반대다: 정신적 해방'

헤이 에브리바디?

제가 '밥 먹지 말고 빵 드세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뭐가 더 중요해요?

밥 먹지 말기 VS 빵 먹기

밥 먹지 말기 선택하신 분들!!!!

그러면 맥락이 고정인 안된다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더 확실한 거 선택하자고,,

밥 먹지 말기에 초점을 두면

빵 먹기 라는 부분 못 읽고 속으로

'아 국 먹어도 되는가?' 부터 시작해서 '왜 밥 먹으면 안되는 건데 살쪼서 그렇나?'

막 이런 생각이 피어올라요.

고정값인 '빵 먹기 고르셔야죠'

이 예문도 똑같아요.

뭐가 아니다? 이걸 필요 없어요
그게 뭔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 레전드 깨알 팁)
이 맥락에서

1. Not A But B
 2. Not Only A But Also B
- > A 안 읽어도 됩니다.

왜? A가 아니라 B다. / A뿐만 아니라 B도
니까 ~가 아니라 ~다의 구조에서 ~가 아니라는 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린 어쨌든 시간도 줄여야하고
머리도 IQ 200 아니라서 다 분석하면서 읽을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자 그럼

저 예문 다시 들고 올게요

This is not thought control. It is the very reverse: mental liberation

This is not thought control 이 아니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It is the very reverse
-> 그 반대다? 아니라는 말이네요?
빼도록 하겠습니다.

This는 뭘 지칭하는지 알려주는 거니까 남겨두고

그럼 남는 거 뭐예요?
This, mental liberation 이네요?

됐네요? 요지 찾았네요?

마지막 3의 경우 보겠습니다.

3.

"If there is a clear line between burned out and not, as there is with a lightbulb, then we have no good way to categorize people who say they are burned out but still manage to do their work competently."

만약 뭐시기가 있었다면, 뭐뭐 땡키로, 그럼 우린 뭐가 어케 된다.

이런 식이네요

If / as / then 세 개 읽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문장 해석도 안 해봤는데 그게 그 뜻인지 어떻게 압니까?'

"문장 많이 읽어보세요 틀 잡힙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많이 해보면 알아요"

이 문장의 경우

~한다면 ~된다 의 구조죠?

전 이걸 현상-풀이 구조라고 합니다.

현상 던져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면서 풀어서 설명해주는 구조예요.

자

저희는 앞서 '중요한 거만 보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상-풀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나요?

둘 다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풀이가 더 중요하긴 해요

왜? 현상이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었는 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건데?'라는 생각이 바탕에 핵심으로 깔려있거든요.

풀이 중심으로 봅시다.

번아웃 된 거 & 안 된 거 사이 명확한 구분선 존재 -> 번아웃 왔는데도 일 잘하고 있는 사람 분류 못함

이라고 해요

줄여 보면?

구분선 존재 = 분류 못하게 됨

좀 더 줄여 보면?

구분 $\neg$ $\rightarrow$ 분류 X

즉,

결과론적으로 보면

변아웃 O VS 변아웃 X 사이 구분선이 존재하게 되면 변아웃 왔는데도 일 잘하고 있는 사람 분류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담고 가야 할 정보는?

구분선 있으면 분류 망함.

EASY 하죠??

자 여러분,

문장 해석 파트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칼럼 쓰기 시작한지 30분도 안되었지만

체감상 하루 이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내볼게요
여러분도 힘내서 읽어주세요..

한 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문장 해석의 키 포인트는
'중요 정보' 가려내서
'머릿속에 머금고 가기'입니다.

왜?

우린 문장 안에 있는 정보 다 들고 갈 수가 없다니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만 추출해서 '머금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문장 해석 파트에서

'쌤이 쓴 문장이니까 강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거 다 기출입니다 순서대로 24 수능 25 수능 25학년도 6모 문장이예요
평가원 거 가져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은 이해가 되는데 선지 선택이 어렵다는 학생들을 위한 파트입니다.

글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아니 선지가 다 똑같은 소리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하지;; 라고 생각하신 학생분들 손?

(대충 손 든 분들 10억명 보이네요?)

함 짚어봅시다.

다음 두 케이스로 분류됩니다.

- 1) 지문을 애초에 이상하게 이해한 사람
- 2) 선지가 진짜 구별이 안되는 사람

걱정 마요 둘 중 그 어떤 케이스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1) 은

구문 해석이 제대로 안되어서 (모르는 단어 있어서 대충 끼워맞췄는데 그게 아예 잘못 짚은 뜻이라 글 자체가 지향하는 방향점에서부터 다소 왜곡되는 경우 / 중요 정보 가리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안 중요한 것들만 계속 가져가서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상하게 왜곡되는 경우 / 해석이 아예 안되어서 자기 '사건' 넣었다가 echo-chamber 마냥 글의 목소리를 안 듣고 본인의 목소리만 울려서 그게 지문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게 되어 글 자체가 편향되는 경우)
그런 겁니다.

구문 해석 제대로 하면 해결됩니다.

2)는 선지 구분을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진짜 당연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죄송한데 진짜 당연한 게 맞아요.

1. 선지 1번~5번 해석
2. 문항이 묻는 부분의 내용과 선지 해석 대조
3.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 답으로 선택 / '앵 이 얘기 나온 적 없는데?' 내지 '인과가 좀 바뀌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답 선택 X

1. 선지 1번~5번 해석은 그냥 해석하심 됩니다~ (모르는 단어 있는 경우 반드시 노트에 넣어두고)
2. 문항이 묻는 부분의 내용 알려면 구문 해석 제대로 하셨음 됩니다. 선지 해석은 물론이구요
3. 이게 진짜 문제죠?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생각해서 선택해서 틀렸어요! ㅠㅠ'라고 생각하신 분?
(손 드신 분 100억 명 확인했습니다~)

필터링 없이 말하자면,
선지 해석부터 문항이 묻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된 것
+

'이게 정답이지' 라는 생각이 아닌

'이것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이 마인드가 중요해요.

본인이 읽은 글에 대한 확신과

'확실한' 선지를 찾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많이 풀어보며

오답 선지가 어떤 이유로 오답이 되는지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오답 선지를 해결해주는 마인드는

'이 얘기가 빠져있다'

'선지 속 인과가 잘못 되어있다'

'이 표현 관련해서는 나온 적도 없다'

라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선지 속 인과가 잘못 되어있다는 것은

지문은 '밥 먹고 빵 먹으면 체한다'라고 했는데

선지에선 '빵 먹고 밥 먹으면 체한다'라고 써둔 겁니다.

이거 은근 많이들 헷갈려 합니데이~

이만 이 칼럼은 끝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친숙한 말투로 글을 써보았는데,

거부감이 드셨다면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멘토, 한대산 영어였습니다.

#8 D-100, 수능 영어 지문 '이해'의 모든 것

안녕하십니까. 한대산 영어입니다.

오늘, 2025년 8월 5일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D-100일입니다.

운명일까요, 마침 어제 휴가를 나와 칼럼을 쓸 수 있게 되어 다행이기도 하고 또 기쁩니다.

오늘은 '지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철학적이고 실용성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 실용성을 입증할 내용임을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분류한 수능 영어 문항의 유형을 가져와보겠습니다.

수능 영어에는 오직 유형이 세 개,

1. 지문이 완전하게 제시되는 유형
2. 지문이 불완전하게 제시되는 유형
3. 그 외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형 1. 지문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유형

유형 2. 지문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유형

유형 3. 쉬운 거

유형 1

20, 21, 22, 23, 24,

30, 31, 32, 33, 34,

40, 41, 42

유형 2

36, 37, 38, 39

유형 3

18, 19,

25, 26, 27, 28,

29, 35,

43, 44, 45

(2025.03.10) [#0.5 수능 영어 유형 정리 + 티어표 中] - 한대산 영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문 이해 능력'은
유형 1과 유형 2에서 상당히 중요한,
혹은 심지어 문항 그 자체의 목적이 되는 능력입니다.

지문이란,
완전하게 주어진 글, 혹은 과편으로서 주어진 불완전한 글을 말합니다.

이해는, ('지문'과 달리)
완전하게 주어졌는가, 아닌가에 따라 그 정의와 기능이 달라집니다.

완전하게 주어진 글에서 이해란, '필자 혹은 글의 궁극적 메시지', 즉 '주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게 주어진 글에서 이해란, '완결성 있는 흐름의 글을 만들어내는', 즉 '글을 매끄럽게 만
드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주어진 글에서 이해는 미묘한 차이를 가지는 각 선지 사이의 명확한 구분선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불완전하게 주어진 글에서 이해는 '매끄럽게 된 글'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거나 이를 바탕으로 '매
끄러운가'의 여부를 판단하게 해줍니다.

두 '이해'의 갈래는 하나의 공통 요소를 가지는데요,
바로 '맥락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락의 흐름을 알아야만 어떤 대상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맥락의 흐름을 알아야만 주어진 과편 다음에 어떤 것이 이어질지 알 수 있습니다.

[요약 1]

[지문]

- └─ 완전한 글 → [이해] = 주제 파악
 - | └─ 기능: 선지 간 미묘한 차이 구분
 - └─ 불완전한 글 → [이해] = 흐름 완성
 - └─ 기능: 매끄러움에 대한 감각 또는 판단 기준 제공
- 두 이해의 공통점: [맥락의 흐름 파악] 필요

InDePTh 2.0에서 제시하는 '지문 이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의 맥락 흐름에 따라 특정 대상의 성격(특성, 특징)과 다른 대상 사이의 **역학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결론** 혹은 **다음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논리로서 통제되는 **감각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지문의 부분 이해'라 한다.

주어진 정보들의 맥락적 배열(맥락적 장치를 활용한)에 따라
그 안의 대상과 정보 요소가 작동하는 방식(역학 관계)을
논리로서 통제되는 감각을 바탕으로 '조정'하여
글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망이 어떻게 확장 또는 수렴,
혹은 유지되는지를 구성의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지문의 완전 이해'라고 한다.

InDePTh 2.0 초안 中, 2025/07/12 Ver.

요약하자면,
부분 이해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완전 이해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정 100점의 실력을 가졌고,
영어에 대해 원어민 수준의 이해력을 가졌을 경우

글이 완전하게 주어진 유형에 대해선
'완전 이해'를,
반대로, 글이 불완전하게 주어진 유형에 대해선,
'부분 이해'를 연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지문이 완전하게 제시되는 유형'에서는 '완전 이해'를 목표로,
'지문이 불완전하게 제시되는 유형'에서는 '연속적인 부분 이해'를 목표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요약 2]

[수능 영어 문항 유형별 이해 방식]

[지문 이해 유형]

└ 완전한 글 → [이해] = 주제 파악 (완전 이해)

| └ 기능: 선지 간 미묘한 차이 구분

| └ 필요 능력: 구조적 의미망 구성, 정보 배열
조정

| └ 대응 문항: 20~24, 30~34, 40~42

| └ 불완전한 글 → [이해] = 흐름 완성 (부분 이
해)

| └ 기능: 매끄러운 흐름에 대한 감각 / 다음 흐름
판단

| └ 필요 능력: 맥락 흐름 추적, 대상 간 역학 파
악

| └ 대응 문항: 36~39

→ 두 이해의 공통점: [맥락의 흐름 파악] 필요

와닿지 않는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문이 완전하게 제시되는 유형'의 '완전 이해'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ies in which subjects were shown photographs of people's faces and asked to identify the expression or state of mind evinced. The results are invariably very mixed. In the 17th century the French painter and theorist Charles Le Brun drew a series of faces illustrating the various emotions that painters could be called upon to represent. What is striking about them is that _____. What is missing in all this is any setting or context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We must know who this person is, who these other people are, what their relationship is, what is at stake in the scene, and the like. In real life as well as in painting we do not come across just faces; we encounter people in particular situations and our understanding of people cannot somehow be precipitated and held isolated from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in which they, and we, live and breathe and have our being. [3점]

(2024학년도 수능 33번)

* evince: (감정 따위를) 분명히 나타내다 ** precipitate: 촉발하다

- ① all of them could be matched consistently with their intended emotions
- ② every one of them was illustrated with photographic precision
- ③ each of them definitively displayed its own social narrative
- ④ most of them would be seen as representing unique characteristics
- ⑤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for one another without loss

[2024학년도 수능 분석서 中]

절대평가 시행 이후 가장 어려웠던 24 수능 중
가장 어렵다고 평가 받았고 아직도 회자되는 기출 문항입니다.

일단 문항 사진을 저장하시고 풀어보신 다음,
계속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글의 정보와 빈칸 문장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감정을 확정지으려면 특정 상황 아래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사용된 얼굴 그림에는 특정 상황 없이 얼굴만 나와 있었다. 피실험자들은 그림에도 감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판단하였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즉, 일반 상식과는 조금 동떨어져,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특정 상황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대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추론을 한다면, 특정 상황이라는 필수적인 요소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다시 말해, 그 판단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지는 것이다. 즉, 판단이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다면 모두가 비슷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하지만, 판단 기준이 없었음에도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 그 판단이 사람마다 쉽게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을 선지와 연관시켜 보도록 하자, ⑤번을 보았을 때, 다른 하나와 손실 없이 대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인 즉슨, 그 어떠한 영향 없이 쉽사리 바뀐다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지문의 맥락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⑤번이 정답이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판단을 위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2024학년도 수능 분석서 中]

***글의 정보와 빈칸 문장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감정을 확정지으려면 특정 상황 아래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사용된 얼굴 그림에는 특정 상황 없이 얼굴만 나와 있었다. 피실험자들은 그림에도 감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판단하였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즉, 일반 상식과는 조금 동떨어져,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특정 상황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대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추론을 한다면, 특정 상황이라는 필수적인 요소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다시 말해, 그 판단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지는 것이다. 즉, 판단이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다면 모두가 비슷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하지만, 판단 기준이 없었음에도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 그 판단이 사람마다 쉽게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을 선지와 연관시켜 보도록 하자, 5번을 보았을 때, 다른 하나와 손실 없이 대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인 즉슨, 그 어떠한 영향 없이 쉽사리 바뀐다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지문의 맥락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판단을 위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완전 이해'의 영역에 도달한 사람 중에서도 소수의 인원은 그 나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위와 같은 해설자의 영역입니다.

해설자의 영역에 도달하면 보여드린 해설을 대각선으로 읽어도 '그치 그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는 수험생의 입장에선 불필요하니 '완전 이해'만을 연습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만약 '완전 이해'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저 지문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누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그림이나 사진 속의 얼굴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기에 감정을 다 다르게 해석하거나 서로 바뀌도 큰 차이를 못 느낌. 그래서 답은 5번!"

'완전 이해' 수준의 학습자가 이해한 방식

이게 바로 여러분이 도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아직 잘 안 와닿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문이 완전하게 주어진 경우,

1. 문장 이해 (=문장 속 핵심 파악)
2. 맥락 파악 (=역학 관계 파악)
3. 주제 이해 (=완전 이해)

의 순서대로 글을 읽고 이해하게 됩니다.

문장 이해 단계에서는
'어떤 대상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맥락 파악 단계에서는
'특정 대상과 다른 대상이 어떤 역학 관계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주제 이해 단계에서는
'글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순서대로 지문을 분해-이해-재조립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되었으나
나중에는 두 세 문장으로 구성된 '한 맥락'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맥락의 흐름을 알게 되어 주제가 보일 것입니다.

이제,

'지문이 불완전하게 제시되는 유형'의 '부분 이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 (2024학년도 수능 36번)

Negotiation can be defined as an attempt to explore and reconcile conflicting positions in order to reach an acceptable outcome.

(A) Areas of difference can and do frequently remain, and will perhaps be the subject of future negotiations, or indeed remain irreconcilable. In those instances in which the parties have highly antagonistic or polarised relations, the process is likely to be dominated by the exposition, very often in public, of the areas of conflict.

(B) In these and sometimes other forms of negotiation, negotiation serves functions other than reconciling conflicting interests. These will include delay, publicity, diverting attention or seeking intelligence about the other party and its negotiating position.

(C) Whatever the nature of the outcome, which may actually favour one party more than another, the purpose of negotiation is the identification of areas of common interest and conflict. In this sense, depending on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the areas of common interest may be clarified, refined and given negotiated form and substance.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2024학년도 수능 분석서 中]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 수능의 36번 문항입니다.

부분 이해가 뭐였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해보도록 하죠.

글의 맥락 흐름에 따라 특정 대상의 성격(특성, 특징)과 다른 대상 사이의 **역학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결론 혹은 다음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논리로서 통제되는 **감각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지문의 부분 이해'라 한다.

InDePTh 2.0 초안 中, 2025/07/12 Ver.

어떤 대상이 어떻게 다뤄졌고 다른 대상과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또 어떻게 이어질지 감각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부분 이해였습니다.

자, 해설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풀고 오시길 바랍니다.

다 푸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 Areas of difference can and do frequently remain, and will perhaps be the subject of future negotiations, or indeed remain irreconcilable. In those instances in which the parties have highly antagonistic or polarised relations, the process is likely to be dominated by the exposition, very often in public, of the areas of conflict.

차이가 나는 영역은 자주 남을 수도 있고, 남기도 하며, 아마 차후 협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거나, 화해할 수 없는 식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각 측이 매우 적대적이거나 극단화된 관계에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과정은 아주 공개적인 갈등의 영역에 대한 설명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이 높다.

-> 차이가 나는 영역에 대한 진술을 하며, 차후 협상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그 직전이나 직후에 나올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차후 협상'이라는 표현이 이미 진행된 협상의 존재를 암시하므로, 이미 진행된 협상에서 절충안을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A) 앞에 협상의 진행과 맞춰진 각 측의 의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B) In these and sometimes other forms of negotiation, negotiation serves functions other than reconciling conflicting interests. These will include delay, publicity, diverting attention or seeking intelligence about the other party and its negotiating position.

이러한, 혹은 다른 형식의 협상에서, 협상은 상충하는 이익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지연, 홍보, 주의를 돌리는 것이나 다른 측의 사람들의 정보나 협상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 협상의 상충하는 포지션을 탐구하고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제외하고도 또 다른 역할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혹은 다른 형식의 협상'이라는 표현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앞서 협상의 형식에 대해 언급이 나왔음이 분명하다. 이를 유념하도록 하자.

[2024학년도 수능 분석서 中]

(C) Whatever the nature of the outcome, which may actually favour one party more than another, the purpose of negotiation is the identification of areas of common interest and conflict. In this sense, depending on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the areas of common interest may be clarified, refined and given negotiated form and substance.

다른 측보다 한 측에 실제로 더 좋을 수도 있는 결과의 특성이 어떻든, 협상의 목적은 공통적인 이득과 상충의 영역에 대한 식별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 측의 의도에 따라, 겹치는 이득이 명확해지고, 정제되며 협의가 이뤄진 형식과 그 실체가 주어질 수 있다.

-> 이는, 협상의 결과에 대한 언급을 하며, 협상의 목적이 '식별'임을 말하며 협상이 될 시에는 공동의 이익의 영역이 뚜렷해지고 그 실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협상이 진행된 시점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2024학년도 수능 분석서 中]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부분에서 '시점'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암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왜 시점이 중요한가?

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글은 본디 선형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형성은,

글은 반드시 첫 문장에서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역삼각형 구조(지문 전반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안 됨 정도가 큼 -> 지문 전반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됨)를 띠기에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앞서 무언가가 주어져야만 그 뒤에 무언가가 더욱 구체화시켜주는데,
각 부분(혹은 조금 더 정교하게 말하자면, 맥락 파편) 사이의 연결고리가 '흐름'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인과성이나 대립 구도를 볼 때 시점, 혹은 흐름을 잘 보고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지문 이해의 방법'에 관한 칼럼이었습니다.